

사설

고속철 반대 불교도대회를 보며

봄이 왔음을 아는 데 온산의 푸르름이 필요치는 않다. 인간사도 그렇다. 단 한사람만 깨어있어도 인류는 잠들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한 사람만 깨어도 만생명이 깨친다'고 한다.

지을 스님. 앞으로 한국 사회는 이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지난 2월 5일 경부고속철 천선산·급정산 통과를 반대하여 단식에 돌입, 대통령으로부터 노선 '재검토'를 받아냈기 때문이 아니다. 각성된 한 사람의 힘이 능히 만생명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생명을 지키는 진짜 힘

지을 스님이 뿌린 '단식'이라는 씨앗은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불교도 정진대회'라는 나무로 자랐다. 하지만 이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아직 누구도 모른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불교도 정진대회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수호'라는 장황한 수식어를 단 '불교도 정진대회'에 대해 주최측에서는 불교적인 집회의 전형을 제시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불교적'인가. 법고를 울리고 목탁을 치면서 '생명의 존엄'만을 외치면 불교적인가. 결코 그런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불교적인가. '법구경'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내 생명이 이 일을 견주어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말라."

바로 이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적 실천의 준거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참회

를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반생명적이었나를 먼저 살펴야 한다. 물론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이 온당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의 각성을 전제하지 않은 문제 제기는 구조로 그칠 수밖에 없다. '나'를 뺀 '우리'의 참가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참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의 불교도 정진대회를 현대 문명과 그것에 근거를 둔 우리네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로 이어가자는 것이다. 현대 문명의 온갖 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반개발만을 얘기한다는 것은 공허한 외침이다. 근본적으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전 지구적 파멸은 시간 문제일 따름이다. '소박한 밥상'과 '작은 집'에 살기를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이 다수가 되지 않고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참회·상생의 출발점 왜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정부나 기업이 아니다. 자본과 정치는 인간의 탐욕을 자양으로 하기 때문이다. 좀더 냉정히 말하면, 반개발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개발의 '숙주'이기도 한 것이다.

결코 이번 불교도 정진대회를 금정산·천성산 통과 저지라는 개별 사안으로 함몰시켜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의 반생명적 삶에 대한 참회의 마당으로 삼아야 한다.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과의 상생이 가능한 삶을 일구어나가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불교의 시대적 소명이다.

지을 스님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38일간이나 굶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밥을 줄여야 할 차례다.

성보문화재 'e-세상'에 모은다

조계종 전산관리 프로그램 개발, 효율적 관리 기대

정보 관리도 전산화 시대를 맞았다.

조계종 총무원회는 최근 '성보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2일 공개 시연회를 가졌다. 문화부와 기획실이 6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년여 작업 끝에 개발한 성보관리 프로그램은 종단 소유 문화재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참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올해 월정사, 선홍사, 마곡사, 범주사, 용주사 본·말사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24개 본·말사 2600여 사찰 소장 4만여 건의 성보 입력 작업을 완료할 계획

보관상태·발굴시기·조각 등 9개 장르로

2007년까지 2600여 사찰 소장 4만건 입력

획이다.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와 자체 성보일제조사와 맞물려 1950년 이전 성보는 일제조사를, 이후 최근까지 조성된 성보는 일제조사를 바탕으로 입력하게 된다. 96년 시작된 일제조사는 현재 19개 본·말사 1,711개 사찰을 마쳤고 2005년 마무리된다. 지난해 강원지역 조사를 마친 일제조사는 문화재청 지원으로 2010년까지 진행된다.

성보등록, 성보검색, 성보변동,

또한 언제, 어디서 발견(발굴)됐으며 보존 상태, 타 기관에 대여하거나 기증한 기록, 보존처리 내용, 훼손이나 도난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 옛 자료 사진이나 관련 보고서·논문까지도 입력할 수 있어 해당 성보의 관련 기록을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교구본 사찰이나 사찰별, 문화재별로 성보 현황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고 변동 상황을 그때그때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성보관리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성보 보수나 도난시 원형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 구성 등의 세부형식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다."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교구본 사찰이나 사찰별, 문화재별로 성보 현황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고 변동 상황을 그때그때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성보관리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성보 보수나 도난시 원형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 구성 등의 세부형식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다."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교구본 사찰이나 사찰별, 문화재별로 성보 현황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고 변동 상황을 그때그때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성보관리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성보 보수나 도난시 원형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 구성 등의 세부형식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불교TV, 월말 사육이전 4월14일부터 프로 개편

불교텔레비전(사장 이수덕, 이하 불교TV)이 이달 말 봉천동 새 사옥으로 이전한다.

불교TV는 10일 열린 제41차 정기이사회에서 31일까지 사무실을 이전하고 4월 20일까지 스튜디오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교텔레비전 회장 성우스님은 "사육 이전을 불교TV 제2의 도약의 계기로 삼고 양질의 프로그램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지어진 새 사옥은 연건평 1,250평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불교TV는 1~4층을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4월 14일부터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고 4월 20일에는 불교TV 법당 무상사 삼천불 봉안 및 점안법회를 가질 계획이다.

여수령 기자

중단백년대계 마스터플랜 수립

법장 총무원장, 불교계 언론인과 간담회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중단백년대계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장스님은 13일 불교계 언론과 가진 간담회에서 "종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종단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세 대역인 여론조사를 벌여, 이를 토대로 세미나 등 검토과정을 거쳐 중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장스님은 이와 관련

한 구체적 실행안 마련을 이미 총무원 기획실에 지시했다. 법장스님에 따르면 중단 마스터플랜은 교육, 포교 등 세부 분야별로 구체적 안이 마련되며, 이를 위해 여론조사는 물론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심도 깊은 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장스님은 또 사면 문제와 관련해 "종정스님의 교시와 98년 중단사태 징계자에 대한 원로회의

의 사면유시를 받들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412호 3면 기사 참조>

이와 함께 대내외적 현안에 대한 적극적 입장표명을 통해 불교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단 홍보도 강화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94년 중단사태 징계자 모임은 이날 '2·27 원로회의의 유지와 사면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입장'을 발표하고, "98년 중단사태 징계자 분반 아니라 94년 징계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사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임시중앙총회 개최 25~29일

결산·법규위원등 선출

조계종 중앙총회는 11일 제2차 의장단, 각 상임분과위원장, 총무원과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157회 임시총회를 25~29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중앙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2002년도 중앙총무기관 및 직영, 특별분당사찰 결산검사의 건 △법규위원 선출의 건 △새 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기능대표선출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동국학원 이사 후보 추천 동의의 건 △총평 개정의 건(총무원장 선

거법, 교구총회법, 중앙총회의원 선거법) 등이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24기 행사교육원

남녀행사 총 239명 입교

9일 개원한 조계종 24기 행사교육원에 최종적으로 239명(남행자 154·여행자 85명)이 입교했다. 조계종-선학원 합의에 따른 특별조치로 2000년 선학원에서 자체적으로 계를 받은 8명은 30일 입교해 신제 갈마와 5급 승가고시를 치르게 된다. 사미니계 수계식은 31일에 있다. 권형진 기자

중국,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초청

중국 정부가 조계종 총무원장의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11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법장스님을 예방한 리 빈(李濱) 주한 중국대사는 "한국불교계와의 협력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중국 국가는 조계종 지도부가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을 방문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이달 중 10일간 일정으로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가종교사무국 명의 초청장을 법장스님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법장스님은 "초청에 감사하며,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 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고 답했다. 한명우 기자

태국, 연등축제 참가

오는 5월 열리는 올해 봉축행사에 태국이 정부 차원에서 참가한다. 숭본 상이암빳 주한 태국대사는 11일 법장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등축제에 참가하는 태국공영단은 5월2일부터 사흘동안 거리행사가 열리는 우정국로에서 태국 음식과 수공예품 전시 축제를 개최, 수익금 전액을 조계사에 기부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사서실장에 청학스님 조계종 총무원

조계종 총무원은 11일 사서실장에 청학스님(길상사)을 임명했다. 또 사서국장에는 감사국장으로 임명했던 태진스님을 전보발령하고, 공석이 된 감사국장에는 선암스님을 임명했다.

향부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청학스님은 순천포교당 주지, 프랑스 파리 길상사 주지, 서울 길상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는 맑고 향기롭게 이사를 맡고 있다. 한명우 기자



2·27 원로회의의 유지와 사면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입장

금년 신년 하례 식 때 法傳 宗正殿下께서「僧伽의 第一德目이 和合」이라는 말씀과 함께「赦免할 것은 赦免을 하라」는 法語를 내리신 데 대해 사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98년에 징계를 받은 승려로 한정된 2·27 원로회의의 사면권과 유지와 관련하여 치탈된 모든 스님들이 적어도 한번은 사면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의 견해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3월 7일자 불교신문에 공고된 2월 27일자 원로회의의명인 사면권과유시에서 사면대상을 '98년 중단사태와 관련하여 징계된 자로 한정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승가화합의 정의에도 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합니다. 먼저 유시에서 사면대상을 98년으로 제한하고, 94·99년 사태 때 징계된 스님들을 제외시켰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 각 사태의 성격을 감안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 同一羯磨·同一說戒 등으로 표현되는 승가화합의 기본원칙의 하나가 갈마의 대상에서 같은 신분을 가진 자 가운데서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동 유시는 승가화합의 정의에도 반합니다.

둘째, 우리는 종정예하와 일부 원로의원간의 이견이 불행한 자초했던 지난 중단사태를 감안 할 때, 원로회의는 종정의 교시(법어)가 如法하였을 경우, 이를 받들어 중앙총회를 비롯해서 종단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합일시키기 위한 유시를 발표했어야 하고, 혹 미비점이 있을 경우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종정의 재가를 얻어서 발표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 유시가 상기 종정예하의 사면관련 법어를 인용하고 해석하는 부분/과정에서 사실의 왜곡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또 동 유시는 당일 원로회의에서 94년도 함께 사면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셋째, 사부대중 여러분! 지난 중단사태를 기억합니다. 94년은 내년으로 10년째입니다. 그리고 당시 치탈된 스님들의 연령은 이미 70대입니다. 중단 내에는 치탈사면문제를 개개인 승려들에 관한 문제요, 훌륭한 문제로 간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비구(那舍 比丘)에 대한 징계를 둘러싼 논의의 결과가 불교교단사상에 저 유명한 第二結集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종정예하의 사

면관련 신년하례 법어를 계기로 종단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사면문제가 공정하고도 투명한 논의의 절차를 통해 해결됨으로써 종단의 법통이 확립되어, 사태의 와중에서 징계되는 우리와 같은 불행한 승려가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넷째, 원로·종진스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들이 윤 율하 전 종정예하께서 1995년 4·8봉축 법어에서 '남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라'고 하신 말씀을, 또 이번 법전 종정예하의 사면관련 법어를 어떤 심경으로 받아드렸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치탈(탈)된 스님들이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께서 개혁중단의 초대종정이신 윤 율하 종정의 원상을 회복시킨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휘양산중의 중흥조로서 봉암사에 주석하고 계신 서암 전 종정예하께서 안락하게 열반에 드시고, 모든 치탈자들을 이해와 자비로 감싸 화합하도록 海量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 3

94년 중단사태와 관련하여 징계받은 승려모임 대변자 덕산 합장

<침언> 불교신문을 비롯한 여러 교계신문의 동 유시관련보도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고된 유시문(불교신문 3월 일자)도 모두에는 98년과 99년을 언급하고 있지만 결론부분은 "98년 중단사태와 관련한 징계자에 대한... 사면"으로 결론짓고 있는 등 내용이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사면문제해결에 대한 중단내 여론 또한 분분하여 제 각각 이어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면문제가 분명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논의되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발표하게 됐다는 것을 거듭 밝혀둡니다.